

雲門

불기 2553년
겨울호
통권 제111호
운문승가대학



불가 2553년 겨울호 통권 제111호

雲門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우바리존자 계승	편집부
죽림헌	3	초심을 잃지 말자	명성 스님
교수논단	4	일연선사와 운문사	명성 스님
차례법문	6	이청득심(以聽得心)	선진 스님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10	벗할 수 있는 스승, 스승 삼을 수 있는 벗	진광 스님
학인논단	12	臨終의례 문화와 佛教徒의 역할 I	지경 스님
특별기고	14	부처님을 모시는 참 불자의 자세	최법수
노스님 탐방	18	따로 구하지 말라	덕운 스님
이 한 권의 책	22	그 첫 마음을 되새기며	수인 스님
선사이야기	24	참으로 선지식이어라	법수 스님
想	26	선달 그림날 밤	서주 스님
풍경소리	28	파욱 국제명상 센터와 호흡관 수행법	해월 스님
끝없는 여정	30	가야할 길을 아는 것과	
	34	그 길을 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도일 스님
이와 같이 들었다	38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調御丈夫)	편집부
담소	40	순수한 마음은 세상에 대한 보은	문태준
마음향기	42	햇살 가득 정토라네	행법 스님
수행의 두레박 I	44	히말라야에 헌신한 보살	신원 스님
II	46	龜氏哥	서보 스님
운문논평	48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편집부
운문소식	50		
등불	51	인내	편집부



신심으로서 욕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대율사 우바리존자

기축년 지궁 齋 齋

초심을 잃지 말자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는 안이한 마음을 수행자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릇 '초심(初心)'의 사람은 모름지기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하며, 오교와 십계 등을 받아서 지키고 범하고 옳고 막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다만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무리의 허망한 말을 따르지 말라."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의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출가하여 계를 받고 강원(山院)에 와서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의지하여 공부하려 온 초심자입니다. 오직 첫 마음으로 하늘을 뚫을만한 드높은 기개를 가지고 부처님이 되겠다고 길을 나선 수행자입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그리고 셋째는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은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중심(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첫 마음을 마지막까지 다잡아서 잘 가꾸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성불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변성정각'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초발심은 바로 정각을 이루는 전부라는 말씀이겠지요.

초심이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품는 첫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고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출가한 학인스님 여러분이 품는 마음입니다. 순수한 신심과 열정으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노릇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동심입니다. 천진무구한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동심이지요.

학인스님 여러분! 첫 마음처럼 싱그럽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는 안이한 마음을 수행자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늘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초심은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해야지 하다가도 삼일만 지나면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리 길을 가는 데는 첫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기초를 닦지 않고 공중 위에 누각을 지을 수 없듯이, 초심이 굳건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부디 수행자의 길에서 초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회향하기를 바랍니다. 스님

一然禪師와 雲門寺 Ⅲ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목 차

1. 序 言
2. 雲門寺의 創建과 來歷
3. 一然스님의 生涯와 性品
4. 一然스님의 著作과 『三國遺事』
5. 一然스님과 雲門寺
6. 結 語

4. 一然스님의 著作과 『三國遺事』

一然스님은 禪師이면서 敎學에도 많은 연구를 하였던 분임을 스님의 생애와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一然碑銘」에 스님의 著作이라고 알려진 것이 8種 100여 권에 이른다.

스님이 직접 지은 것은 『語錄』 2卷과 『偈頌雜著』 3卷이 있고 編修한 것은 『重編曹洞五位』 2卷과 『祖圖』 2卷, 『大藏須知錄』 3卷, 『諸乘法數』 7卷, 『祖庭事苑』 30卷, 『禪門拈頌¹⁾事苑』 30卷 등이 있다.²⁾ 이들 저작 가운데 현전하고 있는 것은 『重編曹洞五位』 2卷 뿐이다. 『重編曹洞五位』는 스님이 南海로 옮겨 修禪社와 관계를 맺게 된 이후 1256년부터 『曹洞五位』³⁾의 補充에 착수하여 1260년에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스님의 저작으로 널리 알려진 『三國遺事』는 碑文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을 비문을 쓴 閔漬가 『삼국유사』를 ‘한갓 심심풀이의 글장난으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본 견해도 있으나 비문에서 밝히고 있는 스님의 100여 권의 저작 중 그 書名을 밝히지 않는 20여 권 중에 『삼국유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을 것 같다. 또한 현전하고 있는 『삼국유사』 卷5의 첫머리에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經沖照大禪師一然撰」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님의 저작임이 분명하다.

『三國遺事』는 5卷으로 되어 있고 9篇의 事類로 나뉘어져 있다. 제1권에는 「王歷第一」과 「紀異第一」이 들어 있고 제2권에는 篇目이 따로 없이 「紀異第一」과 같은 성격의 事類가 계속 수록되어 있다. 제3권에는 「興法第三」과 「塔像第四」가 들어 있고 제4권에는 「義解第五」가 있으며 제5권에는 「神呪第六」, 「感應第七」, 「避隱第八」, 「孝善第九」 등이 실려 있다. 이러한 구성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의 王歷篇은 신라, 고구려, 백제, 駕洛 그리고 後高句麗(泰封), 後百濟 등 다시 말해서 신라의 初頭에서부터 後三國의 고려 태조의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王代와 年表를 圖表式으로 정연하게 보이고 있으며, 그 윗쪽과 末尾 부분에 중국의 역대 왕조와 年號를 표하여 시대적인 준거가 되게 하고 있다.

第2의 紀異篇에서는 卷1에 「古朝鮮」, 「衛滿朝鮮」 등 단군조선의 上古代로부터 「太宗春秋公」, 「長春郎 罷郎」 등 신라통일 이전인 태종 武烈王代에 이르기까지의 要事를 모은 36項目과 卷2에 「文虎王 法敏」에서 「駕洛國記」 등 통일 이후 國亡까지의 신라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와 후백제 및 가락 등에 대한 것을 수록한 23項目이 있다. 결국 紀異 全篇에는 모두 59項目이 있는 셈이다.

第3의 興法篇에는 「順道肇麗」를 비롯하여 삼국의 佛法傳來 및 興法의 事實을 주로 한 6項目이 들어 있다.

第4의 塔像篇에는 「東京興輪寺 金堂十聖」을 비롯하여 「五台山文殊寺 石塔記」에 이르기까지 주로 신라의 塔像을 중심으로 한 31항목을 수록하였다.

第5의 義解篇에는 「圓光西學」을 비롯하여 신라의 高僧들에 대한 傳記가 중심이 된 14項目이 모여져 있다.

第6의 神呪篇에는 「密本持那」 등 신라의 密敎의 神異僧들에 관한 3項目이 수록되어 있으며,

第7의 感應篇에는 「仙桃山 聖母 隨喜佛事」 등 신라의 靈異感應에 관한 10項目을 수록하였다.

第8의 避隱篇에는 「朗智乘雲普賢樹」를 비롯하여 주로 超脫高逸의 行적을 10項目으로 모아 놓았으며,

끝으로 第9의 孝善篇에서는 「眞定師 孝善雙美」 등 孝行 美談 5項目을 수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9篇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국유

사는 年表인 王歷을 제외하면 도합 138項目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는 시대범주가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이르기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 撰述의 중심은 삼국 중에서도 신라로 되어 있다. 특히 삼국유사의 전체적 구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9篇目 중 처음의 王歷篇이 年表이므로 그 실제 내용은 8篇目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紀異篇을 제외한 7篇 모두가 불교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초기의 韓國佛敎文化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一然스님의 관심은 불교미술, 불교민속, 불교의 사회적 문제, 불교적 신앙과 생활 등 불교 전반에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특히 스님의 관심은 불교의 차원 높은 사상이나 교리, 고승대덕에 대한 것보다는 서민적이며 대중적 측면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생활적 측면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

『三國史記』가 王朝 國家중심의 서술이라면 『三國遺事』는 서민과 서민 생활중심의 서술이라 하겠다.

一然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불교사, 고승전, 불교설화, 탑상, 사찰의 연기, 불교미술, 불교민속, 기타 불교의 사회적·가정적인 문제에까지 깊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禪僧 외에 불교학자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를 정점으로 하여 고대사의 자주적 파악과 강렬한 민족의식 및 주체성에 입각하여 민족사를 확립하고 체계화하고 있는 점에서 국사학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까지 口傳되던 각종 구비전승, 신앙전승 등 재래의 전통문화적 유산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민속학적 자각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결국 一然스님은 禪師이면서 불교학자요, 국

1) 禪門拈頌 ~ 慧湛이 49세 때에 禪門拈頌 30권을 編述하였는데 이 책은 禪林의 公案 1,125種과 諸祖師의 拈頌 등 要語를 수록한 佛書로서 修禪社(松廣寺)에서 이록한 것이다.

2) 〈一然碑銘〉, p.19.

3) 曹洞五位는 洞山良介(807~869)가 제창한 偏正五位로서 즉 正中偏, 偏中正, 正中來, 偏中至, 兼中到이다. 曹洞宗의 핵심적 저술로 曹洞禪脈을 이은 須彌山派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된 것이다. 高麗後期の 禪思想研究, p.152, 權奇綜.

사학자이며 민속학자로서 일찍이 六堂 崔南善이 해로도투스를 서방역사의 아버지라 한 것과 같이 一然선사는 우리 민족사의 아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一然스님과 雲門寺

一然스님과 운문사와의 직접적인 인연은 忠烈王 3년(A.D. 1277)에 왕명에 의해 스님이 운문사에 주석하면서 부터이다. 이어 충렬왕 8년(A.D. 1282) 왕이 다시 스님을 초청하여 開京의 廣明寺에 주석케 할 때까지 4년여간 운문사에 계셨다. 이동안 스님은 南海 定林寺에 계실 때부터 30여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오던 『삼국유사』를 완성하였다.⁴⁾

스님과 운문사와의 관계는 위의 기록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왕이 직접 명하여 스님을 운문사에 주석케 한 점은 소홀히 넘길 부분이 아니다. 운문사는 고려 王建 太祖가 「雲門禪寺」로 賜額한 사찰로 고려 왕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禪刹이었다. 그러나 武臣政權下에서는 그들의 비호를 받은 修禪社와 白蓮社가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안 다소의 침체가 있었으나 元나라 支配期에는 修禪社를 계승한 一然스님이 迦智山門을 중심세력으로 하여 불교계를 이끌었다. 운문사에서 왕명으로 上京한 스님은 國尊에 冊封되고⁵⁾ 圓經忠照라는 法

號를 받았다. 스님을 국사로 책봉하기 전 忠烈王은 群臣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 先王이 다 釋門에 德이 큰 자를 얻어서 王師를 삼았고 德이 또 큰 자를 國師로 삼았으니 不德한 내가 홀로 王師 國師가 없음이 옳지 않다. 이제 雲門和尚은 도가 높고 德이 성하여 사람들이 우러르는 바이니 어찌 마땅히 과인만이 홀로 慈澤을 입지 않으리오...⁶⁾ 라고 하면서 스님을 雲門和尚이라고 일컬으며 운문사와의 깊은 인연을 나타내고 있다.

또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스님의 행장을 撰하여 운문사 동쪽에 行蹟碑를 세운 이가 바로 스님의 門人인 雲門寺 住持 大禪師 法珍(清瑤)이며 이로 인하여 忠烈王이 閔漬에게 碑銘을 짓게 하니 오늘날 麟角寺에 전하는 「普覺國尊碑銘」이다. 이로 볼 때 스님의 생존 당시 스님과 운문사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운문사는 제3차 重創主人 學一 圓應國師에 의해서 禪宗 九山門 中の 하나인 迦智山門이 호남에서 영남지역으로 중심이 넘어오면서 그 중심사찰이 되었다. 원종국사(A.D. 1052~1144)는 仁宗 원년(A.D. 1123)에 王師로 책봉되어 가산문이 당시 불교계의 중심이 되도록 한 분이다.⁷⁾ 현재 국사의 비가 운문사에 남아 있어 당시의 정황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다. 仁宗 7년(A.D. 1129) 국사가 은퇴하여 雲門寺에 주석해 있자 많은 승려 학자들이 운집하여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迦智山門의 중심지가 경상

도로 변동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一然스님은 14세 때에 가산문의 주요사찰인 설악산 陳田寺에서 大雄 長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후에 스님은 가산문의 중심인물이 되었으며 자연히 가산문의 중심사찰인 운문사에 주석하게 되었고 「雲門和尚」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의 문인인 眞靜 大禪師 法珍(清瑤)이 운문사 주지로 있으면서 麟角寺에서 입적한 스님의 행적비를 운문사에 세운 것이다.

또한 스님이 撰한 『삼국유사』 여러 곳에서 운문사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스님의 운문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연을 엿볼 수가 있다. 오늘날 운문사가 비구니 전문 승가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禪敎에 대한 해박한 소양을 겸비한 스님과의 인연이 무관치 않다고 여긴다.

6. 結 語

一然스님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禪師이면서도 敎學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신 분이였다. 고려 후기에 武臣執權期の 對蒙抗爭期와 이후의 元支配期の 혼란한 社會의 정신적 지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이다.

스님은 雲門寺 第3차 重創主人 圓應國師의 뒤를 이어 迦智山門의 中興祖로 일컬어지는 분이다. 또한 스님은 운문사에 주석하면서 雲門和尚이라고도 불렸으며, 운문사에서 「삼국유사」를 편찬하여 불교학자요 국사학자요 민속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신 분이다.

그런데 스님께서 입적하신 麟角寺가 퇴락하여 옛모습을 찾을 길 없고 스님의 神道碑마저 수차례의 兵火로 파손되었다. 더욱이 古今을 통하여 과거 응시자들이 비석의 글자를 깎아내어 갈아 마시면 스님의 神力으로 반드시 급제한다는

迷信 때문에 훼손되어 거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국사의 업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영원히 잊을 수 없거늘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국민의 한 사람, 아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 파손된 碑石을 볼 때마다 통탄을 금치 못한다. 또한 스님의 浮屠인 靜照塔이 명당자리를 탐낸 일부 허황된 자들에 의하여 훼손된 채로 방치되었던 것을 근년에야 인각사 경내로 옮겨 놓은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一然스님께서 주석하셨던 운문사에 몸담아 살면서 禪敎一致에 입각하여 수많은 저서와 업적을 남기신 스님을 敬慕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평소의 수행에 좌표로 삼고 있다. 이제 一然스님과 운문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인각사의 복원과 碑石의 원상복구를 바라마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三國遺事와 僧 一然과의 關係考察」, 李楠永, 第一回全國佛敎學術發表大會.
- 「三國遺事の體裁와 그 性格」, 金煥泰, 東國大學校 論文集 第十三輯.
- 「一然의 悲願」, 閔泳珪, 第七回國際佛敎學術會議.
- 「三國遺事와 佛敎儀禮」, 洪潤植, 佛敎學報 第十六輯.
- 「一然의 重編曹洞五位」, 權奇稜, 高麗後期の 禪思想研究中.
- 「一然(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中)」,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編.
- 「三國遺事解題」, 崔南善編, 新證 三國遺事 三中堂, 1946.
- 「普覺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 蔡尙植, 韓國史硏究 26, 1979.
- 「麟角寺誌」, 蔣濟明 編纂委員會.
- 「麗代の 雲門寺와 密陽, 清道 地方」, 金潤坤, 嶺南大民族文化研究所, 1983.
- 「一然論」, 印權煥, 韓國文學作家論, 螢雪出版社, 1977.

4)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달고 완성하신 곳은 운문사와 인각사 두 곳으로 논란이 있다. 崔南善, 權相老, 黃浪江 등의 학자는 『삼국유사』의 달고 완성한 곳을 운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5) 國尊이라고 한 것은 中國에서 國師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改國師爲國尊者, 爲避大朝國師之號也」, 一然碑銘, p.10.

6) 「上謂群臣曰 我先王 皆得釋門德大者爲王師, 德又大者 爲國師在不德獨無可乎. 今雲門和尚道尊德盛人所共仰 豈宜寡人獨蒙慈澤當與一國共之」, 一然碑銘, p.9.

7) 圓應國사는 保安사람으로 字가 逢梁, 西原, 名이 學一이었다. 13세에 具足戒를 받고 香水惠會에게서 禪旨를 깨닫고 經, 律, 論 三藏을 연구하여 특히 大般若經에 능통하였다. 예종 때에 三重大師, 禪師, 大禪師가 되었고 仁宗 때에 王師가 되었다. 운문사에서 입적하시니 세수 93세요, 법랍이 82세였다. 諡號가 圓應으로 國師로 추증되었다. 雲門寺 圓應國師碑.

이청득심(以聽得心)

선 진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대교반 마지막 법사 선진입니다.

겨울이라는 이름이 행여 무색할까봐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부는 그런 날입니다. 춥다는 것은 덩다의 반대가 아니라 따뜻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봄날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벽에 이를 수 없듯, 추운 겨울을 지내지 않고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찰나찰나 변하는 것이라 어느 한 지점을 꼭 집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시점이 되면 늘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행자이기에 배 순간 깨어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행자라는 지칭이 어색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4년 동안의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낼까 합니다.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미리 나의 생각으로 짐작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빈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텅 빈 마음이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편견과 고집을 잠시 접어 두라는 의미입니다.

자아 곧 애고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부정당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자아를 지녔기에 주장하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부정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측근에 있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쓴 소리를 하는 걸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쓴 소리도 해야 하는 게 진정한 사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직설적인 말을 건네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만 고치면 참 좋겠어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냥 모르는 척 해버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무안하기도 했고, 또 제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말을 듣던 순간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요. 저 역시도 옆 사람에게 말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때로 사람에 따라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겉으로는 어설픈 미소로 참고 견디며 진짜 자기를 감추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워 완전히 자기 속에 파묻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주하는 자기를 멈추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구제받지도 못해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城을 만들려고 하면 자기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타니파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네의 친구'라고 말로는 곧잘 자멸여대지만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진실한 친구가 아니다.

수행자는 사람으로부터 온갖 욕설을 먹더라도 불쾌한 표정으로 여기에 응해서는 안 되며 거친 말로 대꾸해 서도 안 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적대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이런 이치를 잘 알아서 언제나 깊이 생각하며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 제기 속에 매달려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매우 어리석습니다. 이 평가를 자신에게 유익한 약으로 삼아 오히려 겸허하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물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기쁨이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썸바귀를 먹을 수 있어야, 그 후에 오는 단맛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까운 이가 외면하는 쓸쓸함, 결국 인간은 홀로 된 섬이라는 명제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 고립감에 유배되었던 분들도 여기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잘해 주었던 부분들을 더 자주 되새김하고, 상대방에게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이 그 동안 말없이 참고 견뎌준 나의 약점과 허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힘, 달리 말하면 무작정 억누르는 참아냄이 아닌 그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눈길은 온유하게, 마음은 겸허하게 지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고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는 격언처럼 침묵을 배우는 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그런 말을 옆에서 해줄 도반들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니 조금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옆에 있는 도반들과 함께 할 대중스님 여러분!

그 순간이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진정으로 공부하는 수행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수행자이기에 如一하게 보내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좀 더 자신을 새롭게 바꾸어 변화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따뜻한 봄날처럼 항상 행복한 나날이 되길 부처님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ॐ

벗할 수 있는 스승, 스승 삼을 수 있는 벗

진 광 / 운문승가대학 강사

겨울 비바람이 지나간 후 밤하늘을 보니 별들이 유난히 반짝입니다. 새벽녘에 마당 가운데 서서 오리온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겨울하늘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육각의 대칭 별들을 찾아봅니다. 시린 밤하늘에 커다랗게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다가 문득 "바람에 쓸려 가는 밤하늘 구름 사이 / 저렇게도 파릇한 별들의 뿌림이여 / 누워서 반듯이 바라보는 / 내 바로 가슴 내 바로 심장 바로 눈동자에 맞닿는 /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 / 그 삼박이는 물기 어림..."이라고 했던 시구(詩句)를 읊조려 봅니다.

차가운 어둠속에 빛을 뿌리고 있는 겨울하늘을 오랫동안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지구적인 시각이 아닌 우주적 시각과 1:1 대응하며 우주 밖으로 흐르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10억의 10억 송이라는 무한에 가까운 별 하늘 속에 나의 별도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명(明) 말의 사상가였던 이탁오는 "벗할 수 없다면 참다운 스승이 아니고, 스승 삼을 수 없다면 참다운 벗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스승은 벗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벗은 스승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허선사가 제자인 한암선사와 헤어지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천성이 화광동진(和光同塵)을 좋아하고 더불어 꼬리를 진흙 가운데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만 스스로 삼살개 뒷다리처럼 너절하게 44년의 세월을 지내다 우연히 한암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선행은 순직하고 또 학문이 고명하여 1년을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평생에 처음 만난 사람인양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 서로 이별하게 되니, 아침저녁의 연운(煙雲)과 산해(山海)의 멀고 가까움이 진실로 보내는 회포를 뉘흔들지 않는 것이 없다. 하물며 덧없는 인생은 늙기 쉽고,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즉, 이 별의 섬섬한 마음이야 더 어떻다고 말할 수 있으랴. 옛날 사람은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 차 있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랴'고 하지 않았던가, 과연 한암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知音)이 되랴."

스승과 제자란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벗할 수 있는 제자를 둔 경허스님은 행복했습니다. 벗할 수 있는 스승을 모신 한암스님 또한 행운아였습니다. 사제지간일지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없다면 어찌 진정한 스승과 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깨달음(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이 산문에 발을 들여놓고 '출가'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내가 던진 질문은 나 자신이요, 내 인생이며, 내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자주 우회로의 연속이라고 탄식합니다. 지름길로 갈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회로 또한 다른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삶의 길에는 우회로나 지름길이 따로 없습니다. 삶의 길은 모두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출가의 길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의 길에서는 어떤 신분이냐 지위를 물을 것 없이 자신이 업으로 하고 있는 그 길에 통달한 이라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앉은 자리에서 그저 만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몸소 보리심을 발해 찾아 나설 때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승은 메아리에도 같아서 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서 진정한 스승과 벗은 우리 수행자에게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건너듯, 스승에 빠지지 말고 스승을 건너라."

빠지지 않고 건너기! 그러기에 다음 여정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하게 놓아두라. 물결과 바람에 몸을 맡기라. 마음의 원대로 하라. 하지만 짐착과 몰입, 원망과 자학으로 빠지지 않는 말라. 사랑스런 벗이여!"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여행자는 바람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스승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스승을 존경하고, 벗이면서도 스승처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과 벗의 만남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

저는 학인스님들이 강원에서 경전을 보는 뜻은 옛 거울에 오늘의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일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대입시켜 보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있음과 서야 할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인스님들에게 난 어떤 스승일까? 학인스님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소녀시대 팀장'입니다. 전, 이 '소녀시대~'라는 별명이 그리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의 애교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어떤 권위나 선입견, 편견 없이 그대로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진하고 순수한 동심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서로 즐겁게 경전을 보고 수행할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분명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저는 너무 많은 말을 해 왔으니, 혀에는 온통 가시가 돋았습니다. 이제 제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요한 침묵의 언어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너무 많은 말을 들어 왔으니, 소란함으로 제 귀는 지쳤습니다. 이제 제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벗할 수 있는 침묵의 스승, 스승 삼을 수 있는 침묵의 벗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벗할 수 있는 스승, 스승 삼을 수 있는 벗이! ☸

『臨終의례 문화와 佛敎徒의 역할』 I

- 초기경전과 현대과학을 통해 본 Buddha의 Well-dying 사상을 중심으로 -

자 겸 / 사집과

* 이 논문은 제5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논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차

I. 시작하는 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II. 불교와 과학으로 본 생명과 죽음의 이해

1. 종교와 과학의 통섭
2. 생명의 근원
3. 죽음의 이해

III. 현대사회의 Well-dying 문화와 임종의례

1. Well-dying 문화
2. 임종의례 문화

IV. Buddha의 Well-dying 사상과 임종의례

1. Buddha의 Well-dying 사상
2. 불교도의 Well-dying
3. 현대사회의 불교 임종의례

V. 임종의례 문화 정립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

1. 불교도의 정체성 확립
2. 불교적 Well-dying 문화운동
3. 차별화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연구
4. 불교도의 임종의례 문화
5. 다양한 불교 임종의례 개발
6. 불교 임종의례 관련 인프라의 구축
7. 불교 일생의례의 표준화와 생활화

VI. 맺음말

I. 시작하는 말

현대사회에 있어서 죽음은 가장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유명연예인들의 자살 등 사회적 공인의 잇따른 죽음과 존엄사(尊嚴死) 논란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 및 종교계에서 죽음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다. 일 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수는 약 24만 명 정도이며, 하루에 평균 약 700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율로 대략 하루 4천 건 이상과 OECD 자살율 1위로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을 한다고 한다. 죽음을 생겨남과 사라짐이라고 표현한다면 우주에서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현상 속에서 매 순간 생멸과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별의 소멸, 전쟁, 기아, 자살, 낙태, 유기전·실험동물의 안락사, 식용동물의 도축 등 이 시간에도 죽음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내 몸도 매 순간 세포분열로 죽어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문화의 시대이다. 웰다잉 문화 중에서도 포교·개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종의례의 정립을 위해선 다종교·다문화 시대에서 다양한 수행법과 기복신앙으로 인한 불교의 정체성 & 윤리성·도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현대인의 예기치 않은 죽음이 스트레스 지수 100중에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뇌의 기능이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이후에도 생명연장장치로 호흡과 심장박동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죽음의 현대적인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는 만큼 종교의 사회적 기능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불교와 과학의 상호연관성을 통해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2600년 전 붓다의 웰다잉 사상을 바탕으로 임종의례 문화 정립을 위한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정체성 회복과 불교도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대과학과 붓다의 원음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초기경전으로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초기경전은 경전과 종파마다 각기 토착화되어 달라진 신행과 의례의 차이점에 통일성을 부여해 불교의 기준지표를 설정하는 방향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초기경전에서 붓다가 제시하는 웰다잉, 죽음극복의 가르침과 수행의 개념을 통해 현대사회 불교도의 역할에 대해 밝혔다.

임종의례란 호스피스에서 장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므로 종교의례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기보다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죽음의례라는 총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생명의 원천이자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파동, 공명의 영향으로 생명체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기도, 의식, 종교음악 등에 따라 몸과 의식작용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종자와 사별가족에게 파급되는 효과로 의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불교조계종을 기준으로 임종의례의 표준화된 의식집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임종의례 문화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종자의 범위는 예후 불량(난치성 질환의 병고로, 현재의 모든 의료기술을 구사하여도 치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임종이 가깝다고 생각되는 상태)이라고 진단되어진 사람이나 노인 등 예고된 죽음 앞에서 미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임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불교조계종의 임종의례 현황을 기준으로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교도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II. 불교와 과학으로 본 생명과 죽음의 이해

1. 종교와 과학의 통섭

지구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60억 년 전, 인류의 등장은 약 700만 년 내지 450만 년 전, 이에 비해 인류 최초의 종교적 행위의 시작은 약 20만 년 전쯤으로 알려져 있다.¹⁾ 현대사회는 과학문명과 문화의 시대이다. 현대 과학시대에서 현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근기에 맞게 포용하는 대기설법의 방편으로 과학과 불교의 상호적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붓다도 대기설법으로 중생교화를 하셨듯이 세계화, 과학화의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시대의 종교, 미래사회의 종교, 생태·평화의 종교로서 인류문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2. 생명의 근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생명은 과연 지구에서만 태어난 것일까?
우주는 과연 우리의 고향일까?

비단 종교나 철학에서의 의문이 아니라 탄생과 멸종 그리고 진화에 대해 과학자들은 이 철학적이고 원초적인 의문에 대해 우주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우주의 물질에서 언제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지에 관해서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양계 중에서 생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행성은 지구뿐이다. 우주에서 온 지구 내의 생명에 관한 과학자들의 탐구²⁾는 우주의 기원과 생성에 대해 2가지

1) 윤영해, 「종교, 자유와 속박의 이중주」, 동학 2009 가을호.

2) 우주대기행 - 혜성으로부터 온 생명에 관한 연구 동영상, <http://www.pandora.tv/my.syh4312/7641019>.

이론으로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다. 불교의 만법귀일(萬法歸一) 이론과 같은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³⁾에서 나온 빅뱅 이론과 끈 이론이다. 붓다는 우주를 삼천大千세계로 표현하면서 우주를 무수하게 다양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짜인 거대한 그물에 비유했다. 과학자들 또한 우주를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우주를 은하단끼리 그물눈처럼 이어진 구조라고 밝히고 있다.

우주의 생성·소멸과정을 통해 지구가 탄생하였고 바다가 생긴 후 약 40억 년 전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구별하는 결정적 요소는 물이다. 우리 행성의 70%는 물에 덮여 있다. 약 5억 년 전까지는 바다에만 생명이 있었으며, 바다의 '물'에는 지구 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원소가 녹아있다고 한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RNA 월드 가설, 단백질 월드 가설, 쓰레기주머니 월드 가설⁴⁾ 등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대답은 '모른다'이다.⁵⁾ 분자 생물학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포 하나에 모든 유전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 순간에도 생명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생명을 반복하며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건에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붓다의 연기설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어떤 세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지수화풍(地水火風)이라는 4대 물질이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한다는 불교적 이치와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90여 종의 원소들로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물질과 감정, 생각은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파동이 물에 영향을 주어 구조를 결

정하게 된다.

사람이 말이나 글, 음악, 그리고 그림을 보며 기분이 바뀌듯 세포 內 물의 결정도 그에 따라 변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이기 때문'이다. 물은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하기 때문에 결정이 변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이다. 막 태어났을 때는 80~97%, 완전히 성장하면 60~75%, 죽을 때는 약 50~60% 정도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간다고 한다.⁶⁾

3. 죽음의 이해

죽음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으며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모든 세포가 짧은 시간 내에 함께 활동을 멈추는 것이다. 생명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일생을 유전자를 통해 살펴보면 인간의 세포에는 '죽음으로써 개체를 살리는 죽음'과 '개체와 더불어 죽는 죽음'의 두 종류 죽음이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결국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듯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주의 별들도 마찬가지이다. 한 은하의

입장에서 별의 삶을 보면, 별들은 마치 한 생명을 구성하는 유기적 생명체의 세포들처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마치 인간의 세포가 늙으면 사멸하고 새로이 세포가 탄생하여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처럼, 별은 은하의 삶에 중요한 순환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를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우주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현대 천문학은 초신성이 터졌을 때 형성된 많은 중금속들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원소들 역시 초신성에서 온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 98%의 원자들은 계속 바뀐다. 그건 우주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를 뽑는다면 우주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다.

III. 현대사회의 Well-dying 문화와 임종의례

1. Well-dying 문화

웰빙은 60년대 미국의 히피족⁷⁾, 80년대 여피족⁸⁾, 90년대 보보스족⁹⁾의 요소들이 뭉쳐 탄생한

Well-dying 문화			
죽음준비 교육 복지시설	호스피스, 완화의학과		장례, 상조회
	터미널 케어	임종	임종 의례
	임종의례 문화		

〈표1〉 Well-dying 문화와 임종의례 문화

말이다.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늘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웰빙이고, 삶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웰다잉이라면 불교의 生死一如 또한 웰빙 & 웰다잉의 삶일 것이다. 웰다잉 문화란 죽음준비 교육, 호스피스, 복지시설, 유언장, 터미널케어, 완화의학, 장례, 상조회 등을 포함하며, 도표로 표현하면 표1과 같다.

2. 임종의례 문화

임종이란, 임종(臨終)의 臨(임하다) 어떠한 일을 대하다)은 이미 '맞는다'의 의미이며, 터미널케어란, 환자와 가족이 육체적 평안과 정신적 위안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오히려 당당히 받아들이고 죽음준비를 할 때 행복해 한다.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종교적 터미널케어이다. 종교적인 영적care가 뒷받침된 올바른 터미널케어가 수반된 후의 임종의례는 모두에게 행복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귀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 전체로 듣는 것이다. 소리가 진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진동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닿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소리가 귀뿐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에게까지 들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¹⁰⁾ 앞서 II 장의 물과 소리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영적care에서 소리를 통한 염불, 찬송가, 명상음악, 기도 등이 임종자와 사별가족에게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¹¹⁾

- 다음 호에 계속 -

3) 통일장 이론(Unified Field Theory): 기본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형태와 상호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4) RNA 월드 가설-생명은 RNA(리보자임ribozyme: 리보핵산(ribonucleic acid)과 효소(enzyme: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단백질)를 조합시킨 造語: 그 자신이 화학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RNA)를 포함하는 세포로 시작 / 단백질 월드 가설-최초의 생명은 단백질을 포함하는 세포로 시작 / 쓰레기주머니 월드 가설-광대한 분자를 포함하는 '쓰레기주머니'와 같은 구조물에서 대사가 시작되어 공룡 조상으로 진화하는 코스.
5) Newton Highlight, 『생명이란 무엇인가?』, 주)한국뉴턴, 2008.
6) 점점 수분량이 줄어드는 건 노화와 함께 인간의 뇌에서 물의 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7) 청년층을 주체로 하여 시작된 탈사회적(脫社會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8) (Yuppie-young urban professionals)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근교에 살며, 전문직에 종사하여 연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젊은 세대.
9) 부르주아의 물질적 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미국의 새로운 상류계급층.
10) 서정욱, 『잃어버린 지혜 듣기』, 샘터, 2007, p.217.

부처님을 모시는 참 불자의 자세

崔 法 守 / 철학박사, 불교학자

우리 불자들은 흔히 막연하게 부처님을 떠올린다. 그 부처님에는 유신론적인 절대자의 이미지도 실려 있고 자주 다니던 도량에 모셔진 불상의 모습도 담겨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고행상에서 받는 참혹한 느낌도 들어 있다. 이처럼 불자의 가슴 마다에 떠올려지는 부처님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 입수한 정보로 채색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아니 될 것이다. 불자들이 떠올리는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일치하는 기본적인 통일성을 지녀야 한다.

또 불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명료히 답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를 단순히 죄악 범부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에서부터, 그냥 그렇고 그런 중생에 불과하다고 보는 평범한 관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생즉불(衆生卽佛)과 같은 선적 단언을 오해하여 자신이 이미 부처님이라는 극단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 또한 그래서 아니 될 것이다. 불자들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파악에도 모든 불자들에게 일치하는 기본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한

다. 그런 통일된 안목을 모든 불자들이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을 대하는 참 불자의 자세를 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1.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인은 대개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 듯하다. 그 중 한 가지가 공자에게서 잘 드러난다. 기원전 551년에 탄생했다고 여겨지는 공자는 나이 66세쯤 되어 늙고 실망한 채 노나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5년 지나 죽게 되는데 자신이 동시대인에 의해서는 성공한 인물이라고 평가될 무엇 하나 변변한 것을 이룬 것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한 제자가 “스승님은 어떻게 묘사되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論語述而)” 곧 “분(憤)이 발동하여 밥 먹는 것을 잊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 근심을 잊었으며, 이욕고 늙음이 찾아오는 것조차 알지 못했노라.”고.

여기서 분(憤)이 무어겠는가? 이것은 어떤 정서적 상태를 뜻하니, 우리말로 하면 열정이 좋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열정일까? 많은 주석서들은 그것이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렇다.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피어올라 밥 먹는 것을 잊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 근심을 잊었으며, 이욕고 늙음이 찾아오는 것조차 알지 못했노라.”고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명언이 그분의 입을 통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모든 성인은 그 가슴이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꿈틀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그 외에 또 한 가지 빼놓지 못할 덕목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나자렛 예수를 통해 볼 수 있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민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프리즘을 보이게 되니, 대개 다섯과 정도의 정치적 유과를 손꼽고 있다. 사두개파(현실 인정주의, 친로마파로서 기득권층이자 재벌들), 바리새파(율법주의자), 엡세네파(극단적 금욕주의), 열혈당(저항주의), 암하아레츠(기적주의) 등인데 이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해방 및 이스라엘의 구원을 추구하되, 현실 인정으로, 또는 율법으로, 또는 금욕으로, 또는 저항으로, 또는 기적을 통하여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달랐다.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했거니와,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여기서 사랑은 다들 알다시피, 남녀 간의 애욕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뜻한다.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볼 때 예수는 징벌의 신(구약의 신)을 사랑의 신(신약의 신)으로 신관 개혁을 한 인물로 묘사될 정도이다.

이처럼 성인들이란 바로 가슴이 이웃을 향한 한없는 애정으로 또한 충만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외람되지만 공자는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측면이 강하고, 예수는 “이웃을 향한 한없는 애정”의 분위기가 강하다. 이에 비해 우리 부처님은 그 둘을 모두 구축하셨으니, 성인 중의 성인이시며 성자 중의 성자로 모셔야 한다고 본다.

우선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보자. 숨 쉬지 않는 고행과 먹지 않는 고행이라는 지극히 위험한 고행을 실행하시거니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고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맛지마니카야》의 《보리왕자경》에 숨 쉬지 않는 고행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모두 다섯 단계에 걸쳐 점점 극심해지는 고행을 실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보살은 ‘더 강렬한 숨 쉬지 않는 선정의 고행을 실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입과 코와 귀뿐만 아니라 항문, 피부의 숨구멍 등 모든 구멍을 막고 숨쉬기를 정지시켰다. 그러던 보살에게는 온 몸에 강렬한 불길이 타올랐다. 마치 힘센 두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 손발을 묶은 채 숯불 아궁이에 처넣은 것처럼 강렬한 불길이 온 몸을 휩싸며 타올랐던 것이다.”

이처럼 격렬하고 위험한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면 단호히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열정이 그분께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종교적 본질이 ‘창조신에 대한 신앙’에 있다면, 불교의 종교적 본질은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는 종교학적인 비교 관점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만다.

2. 부처님이 갖추신 두 가지 덕목

여기에 더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신 뒤 45년은 오직 중생들의 요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다. 《율장》《마하왕가》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보자.

“나는 하늘의 그물과 인간의 그물을 모두 벗어났다. 너희들도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면했다. 유행(遊行)하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

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여, 그리고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유행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전도의 목적은 부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들의 안락, 천신과 인간의 요익,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반에 드시는 날의 에피소드도 살필만하다. 식중독 증세로 온몸의 기력이 탈진되었기에 파와에서 쿠시나라까지 10Km도 채 안 되는 거리(3 gavuta)를 25번 쉬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이 드시면 가마에라도 의탁해서 이동하시면 될 듯도 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굳이 걸으셨거니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 그런 치명적인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많은 불자들과 중생들의 진정한 편리함을 추구하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의 45년 세월을 오직 중생들의 요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거니와, 이는 부처님이 이웃에 대한 한없는 애정으로 충만하신 분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에는 부처님의 이웃에 대한 그런 애정을 다음과 같이 그려놓고 있다.

“지자(知者)는 일체 중생이 생사의 고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슬픔을 일으키고, 사도(邪道)에서 헤매지만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슬픔을 일으킨다. 오욕의 갈구함이 마치 목마른 자가 소금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음을 보고 슬픔을 일으키고, 나(我)가 없는데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슬픔을 일으킨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그 업을 짓는 것을 보고 슬픔을 일으키고, 무명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 지혜의 등불을 밝힐 줄 모르는 것을 보고 슬픔을 일으킨다. 많은 재물을 지니고도 나누어 줄 줄 모름을 보고 슬픔을 일으키고, 나쁜 벼를 믿어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

음을 보고 슬픔을 일으킨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 무엇보다도 “그분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한없는 애정’으로 충만하신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우리 불자들은 누구인가

부처님은 한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와셋타야, 여기의 너희들은 과거에 여러 다른 출신, 여러 다른 이름, 여러 다른 성씨, 여러 다른 가정을 지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출가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 받으면 ‘나는 수행자 석가의 아들이다.’라고 공언해야 한다. 너희는 공언하기를 ‘나는 세존의 아들이다. 품에 안겨 있고 그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으로부터 낳고 법으로부터 변화되었고 법의 상속자이다.’라고 해야 한다…”

〔《디가니카야》의 《아간나숫타(태초경)》〕

불자(佛子)라는 표현 그대로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규정해 주고 계신다. 우리는 아직 부처님이 아니다. 그렇다고 죄악 범부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중생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단순히 중생이라는 표현과 불자라는 표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중생은 영원히 중생일 수 있지만 불자는 결국에는 부처를 이룬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 늑대의 새끼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사람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자식만이 사람이 되는 이치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관점을 여래장(如來藏, Tathāgata-garbha)이라는 말로 정립하는 경향이 있다. 여래장이라는 말에서는 ‘장’자를 주의해야 한다. 바로 인도말 garbha를 번역한 말이지니와, 이 말은 일차적으로 ‘태아(胎兒)’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곧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여래의 태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다. 사람의 태아만이 자라서 사람이 되듯이 여래의 태아만이 자라서 여래가 되거니와, 우

리는 바로 그 여래의 태아, 여래장이기에 앞으로 자라서 여래를 이룰 자요, 부처님을 이룰 자라는 강한 요청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미 초기불교에서도 여래장과 비슷한 안목이 있어 왔다. 《불종성경》에서는 연등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본생보살에 대해 천신과 인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비길 데 없는 큰 수행자이신 연등불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인간과 천신들은 환희하면서, 이 사람은 실로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륵보살의 수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대목을 만날 수 있다. “시리마타 부처님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아는 눈으로 상가 왕의 정진력을 보고, ‘상가 전륜왕은 분명히 씨앗이다. 부처님 씨앗이다.’라고 생각했다.”〔《Dasa bodhisattuppattikathā》 및 《Dasa bodhisatta-uddesa》 등〕 여기 보면 부처님의 씨앗 곧 불종자(佛種子, Buddha-bīja)라는 안목이 소개된다. 마치 여래장처럼 부처님의 씨앗만이 자라서 부처님이 될 뿐이지 그 외의 어떤 씨앗도 부처님을 이룰 수는 없다.

우리 불자들이 그야말로 불자로 불리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련해 정곡을 찌른 표현이다.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씨앗(佛種子)이요, 여래의 태아(如來藏)이며, 부처님의 아들(佛子)인 것이다.

4. 부처님을 대하는 참 불자의 자세

부처님이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한없는 애정을 가진 분이시고, 불자가 말 그대로 그분의 씨앗이요, 태아요,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참 불자의 자세는 명확해진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닮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부처님처럼 진리에 대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애정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사실 그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참 불자의 자세로 제안할 것이 있느냐 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

다.

둘이켜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열정과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정의 대상, 애정의 대상이 우리는 부처님과 달랐다. 그간 우리의 열정은 돈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열정이었을 뿐이고, 애정은 성적인 욕구로서의 애정이 오히려 전부였는지 모른다. 세속적 성공에 대한 열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여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더 이상 우리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아들인 불자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성에 대한 애욕 또한 그 자체로 부정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너무 과도하여 자기 한 몸 또는 자기 한 가족에 대한 집착이나 성적인 욕구로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어, 더 이상 이웃에 대해 진정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역시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아들인 불자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불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데 부처님을 대하는 자세 운운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세속적 성공에 대한 열정과 성적 욕구로서의 애정만을 지닌 채, 아무리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소리쳐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일이지 않겠는가.

이제 진정으로 부처님을 대하는 참 불자의 자세를 정돈해 보자. 우리 부처님이 진리에의 열정과 이웃에의 애정으로 가득 차신 분임을 잘 새기고, 나는 그분의 자식임을 새겨서 지금부터라도 삶의 에너지를 진리와 이웃에 들이붓는데 애써야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무엇보다 진리와 이웃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의 좌우에 진리와 이웃이라는 가치가 각인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라야 부처님이 보셔도 “선재 선재”라 하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따로 구하지 마라

덕 운 / 사집과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선지식들을 물어 물어 찾아가서 자료를 모은 것이었다. 대체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수행하셨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그분들의 삶이 모두 나에게 수행의 지침이 되었다. 바로 그 며칠 뒤 만공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이 수행하셨던 덕숭산에 가게 되니 더욱 신심이 났다.

1900년대 초 덕숭산 정혜사 부근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다. 소박한 곳에서 큰 공부를 일구어 내는 힘찬 도량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최초 비구니 선원인 견성암이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던 현찬스

님은 그곳의 선원장이셨다.

집을 풀고 노스님을 뵈러 가보니 스님께서는 벌써 자리에 앉아 계셨다. 귀한 시간,

어른스님을 기다리게 한 듯해서 순간 좀 당황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를 맞아 주셨다. 그런 인자한 모습에 긴장되었던 우리들 마음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

새벽마다 당신 방에 찾아오는 고양이에게 다정한 말씀을 베푸시듯, 어느 미물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천진불. 도반스님의 말처럼 노스님께서는 맑음 그 자체였다.

수행하여 얻은 경지나 체험 등에 대해 여쭙어 보려고 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노스님의 첫 말

씀은 “사는 모습이 일러 주는 모습이여, 생활이 법문이란 말이여, 법문이 따로 없어.”였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더욱 자상하게 이어져 당신의 마음 자취를 차분하게 전해 주셨다.

“대중스님, 은사스님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어른스님이 부르면 두 번 부르지 않게 바로 ‘예’ 하고 대답하며, 진정 마음으로 모셔야 해. 이상에 안 맞더라도 말대답 말고, 한순간도 그 뜻을 놓쳐서 은사스님께 불성실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돼. 인욕하고 남을 존중하며 살 줄 알아야 해. 내 상좌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대중스님처럼 모시고 사는 게 좋아. 나는 은사스님 만나서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은사스님 보면 너무나 편안했어.”

얼마나 은사스님을 부처님처럼 모셨으면 그 옛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라는 편안함을 느꼈을까? 나를 잊고 오직 삼매를 이루는 것, 다리 아픈다는 생각, 춥다는 생각, 억울한 생각, 은사스님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등이 들어갈 틈 없이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은 마음에만 있을 뿐 거의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노스님의 그 정성스러움이 감동과 감사로 내 마음에 전해 온다.

뿐만 아니라, 노스님은 요리도 잘하셔서 방송국 등 여기저기서 사찰음식에 대한 촬영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고, 바느질도 뛰어나서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것은 기본이고 가사 편수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노스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부처님 모시듯, 삼매를 닦듯이 열심히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속에서 올라오는 불만, 망상 등 부정적인 감정에 걸리지 않고 ‘열심히’라는 삼매를 이루는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목표를 세워 이 길이 분명하게 옳은 길이고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감정과 욕망과 분별의 늪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본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고 자기변화로 나아가는 길이 행복의 길임을 안다. 고통의 원인을 외부환경인 ‘너’에게서 찾고, ‘나’가 아닌 ‘너’를 바꾸려고 하는 길은 불행의 길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 마음을 잘 새겨서 일시적인 감정과 분별에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노스님처럼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

노스님께서는 모든 것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참으로 쉽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이는 몇이나 될까?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도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노스님. 그 분의 행주좌와가 모두 법문이다. 체험으로 얻은 수행이기에 자연스레 당당함이 배어 나온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사는 모습이 법문이라는 것이.

어떤 뛰어난 경지를 얻으려 하기보다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현재의 삶을 산다면 노스님 같은 순수한 천진불의 모습, 참 수행자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드러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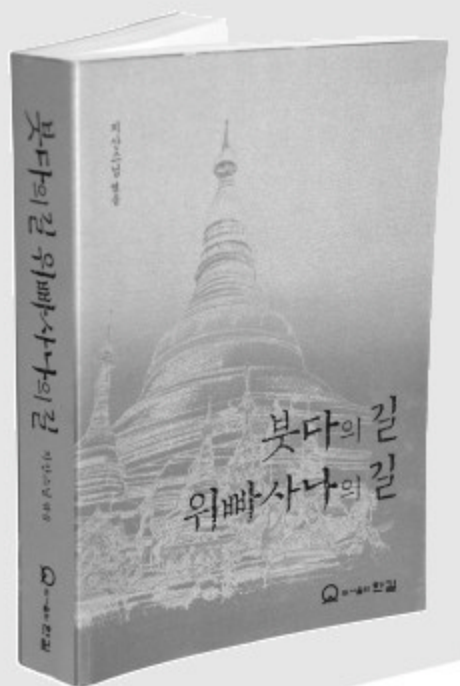


☸ 탐방(2009.10.12.)을 다녀오고 얼마 후, 입적(2009.12.29.) 하신 현찬노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그 첫 마음을 되새기며

- 『붓다의 길, 위빠사나의 길』을 읽고 -

수인 / 대교과



불교수행의 목적은 모든 괴로움에서의 해탈에 있으며 그것은 지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상좌부불교에 있어서 지체를 닦는 수행은 위빠사나 수행이며,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체가 증진하고 열반을 체험함으로써 지체가 완성된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적극적인 길인 위빠사나는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까? 또 나는 어떤 수행의 길을 가야 할까?

졸업 무렵이 되니 여기저기서 진로에 대한 대화가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난 어떤 진로도 결정하지 못했다. 아니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내가 워낙 여러 종류의 수행에 관심이 많아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길에 가능성을 두고 내게 다가오는 인연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때가 온 것일까? 그냥 지나쳤을 여러 진로 방향이나 수행센터에 대한 말들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상좌부불교에 대한 전반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수행방편을 소개한 이 책은 내 삶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위빠사나 수행방법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순수 위빠사나의 마하시 사야도 수행법과 사마타 수행을 전제로 하는 사마타 위빠사나의 파아욱 수행법에 대해서 체계

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두 수행방법엔 각각의 분명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인과적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안목과 어느 공간, 어느 시대, 누가 하더라도 자신이 수행한 만큼 이익을 주는 보편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바로 시작만하면 당장이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우스갯소리로 '졸업 전에 꼭 초선을 이루리라!' 했었다. 그러나 파아욱 수행법을 하고 있는 지금, '수행은 생각이 아니라 오직 행(行)임을, 그것만이 실재이지 모두 환상이며 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수행은 오로지 혼자 가고 홀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그 두려움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수없이 걸었던 그 길 위에, 이렇게 내가 서 있기 때문이었다.

행자교육원에서 오직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삼보일배했었던 그때의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 듯했다. 부처님의 손길, 자비로 충만한 기쁨으로 설레었던 그 첫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생활에 지칠 때면 스스로 위안을 삼는 말이 있다.

'내가 있는 이곳은 사바세계(沙婆世界)다. 감인토(堪忍土)! 참고 인내해야 하는 곳에 살고 있으니 고통스러운 일은 당연한 거지. 그래, 이런 아픔과 슬픔은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책에서는三界 가운데 欲界 속에 있는 인간세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인간세계는 고통과 기쁨이 혼합되어 있다. 붓다가 되기 위한 길을 가는 보디삿다[보살]는 인간계를 가장 좋아하는데 중생을 돕고 깨달음을 완성하는데 가장

은 세계이기 때문이다. 중생을 돕고 깨달음을 완성하는데 가장 좋은 세계이기 때문이다. 붓다들은 항상 인간으로 태어난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뿜 돌았다. (엄격히 말하자면 일종의 보상심리였겠지만)

그 아픔과 슬픔, 서러움 그리고 외로움……, 이 감정들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

'혼자서 그 고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위안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따위의 일은 하지 말자, 머무르지 말자. 스스로 힘들다고 말하는 예고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말자. 이 모든 것은 붓다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자!' 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내 생활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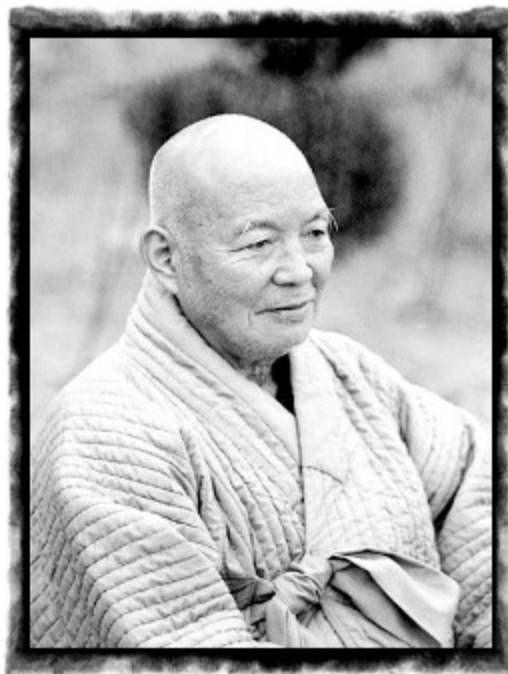
첫째, 붓다는 진정 어떠한 분이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붓다가 될 수 있었는가?

둘째,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이며 그 핵심은 무엇인가?

셋째, 깨달음과 해탈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이 제시한 수행방법은 어떤 것이며 오늘날 그것은 어떤 형태로 실천되고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으로 우리 수행의 디딤돌이 되어줄 『붓다의 길, 위빠사나의 길』. 나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위의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각자의 길에서 스승이신 붓다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때의 벅차오르던 첫 마음, 한없이 넓었던 우리의 원력을 다짐하며……. ॐ



참으로 선지식이더라

범수 / 사미니과

도량석을 하려고 문을 연 순간이었다. “아~!!”

밤사이 도량 가득 쌓여 있는 새하얀 눈은 그 새벽조차 환하게 밝혀 주고 있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 그 눈발 저만치서 건공(犬公) 순이가 뛰어와 내 허리춤에 발자국을 찍고 갔다. 나도 순이랑 같이 눈위를 뒹굴고 싶었다. 쌀 포대를 가지고 와서 썰매라도 타고 싶었다.

“또르륵 뚝!”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들켜서라 얼른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대자유인이 되겠노라고 출가를 했는데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나는 망상을 쫓고, 또 많은 것에 매여 있었다. 수행자로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은 점점 더해지고 스님들에게 갖는 다른 이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느라 점점 규격화되어가고 있었다.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해지지 못하는 또 다른 나. 이게 뭔가? 이런 게 중물 들인다는 건가? 이런저런 번민과 회의감이 들 때쯤 어느 객스님에게서 들은 춘성 큰스님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야! 씨부랄 놈아! 그 담요 당장 내려놓지 못해!”

몰래 담요를 덮고 자는 수좌에게 던진 추상같은 목소리. 춘성 큰스님은 1891년 3월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13세 나이에 백담사로 입산, 만해 한용운의 제자가 되어 스무 살 되던 해 금강산 유점사의 동선(東宣)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안변 석왕사에서 강학(講學)을 전공해 대교과를 마친 후 화엄법사(華嚴法師)로 명성을 드날렸다. 출가 이후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스님은 49세 때 문득 살아온 날을 돌아보게 되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무언가 답답하고 허전한 감을 털어버릴 수 없으니.....’

스님은 덕숭산 수덕사로 만공화상을 찾아가 화두 내려주실 것을 청하였다. 화두를 타파하고자 스님께서 보여주신 수행정진은 생사를 건 치열함이었다. 한 겨울에 불도 때지 않은 방에서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풀지 않았으며 법당 뒤 공터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 밤마다 그 속에 들어가 머리만 내밀고 정진하였다. 물아치는 삭풍도, 살점을 갈라놓을 듯한 추위도 스님의 정진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양주 홍국사에 머물던 어느 날, 춘성스님 앞에 만공화상께서 나타나 영롱한 연꽃을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활연오득(豁然悟得)!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蓮花藏視通身寒 연화장 세계를 깨닫고 보니 온몸이 시원하구나
大千沙界是我身 대천의 항사세계가 바로 내 몸이라
若人問我別傳句 만약 누군가 나에게 따로 전하는 말을 묻는다면
問答卽是出毘盧 묻고 대답 하는 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 하겠다.

대오를 이룬 후 수많은 대중이 춘성 큰스님의 본질을 꿰뚫는 법문을 들으며 해안을 밝혔다. 스님께서는 “그대들의 몸뚱이에 무위진인(無位眞人)이 있나니 항상 그대들의 면전에서 출입한다. 누구라도 이것을 체험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곤 하셨다. 또한 새벽마다 한 시간 넘게 고성 염불(高聲念佛) 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훗날 상좌 건진은 고성 염불교육이 혈기 넘친 제자의 양기를 잠재우는 방편이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1977년 8월 22일 세납 87세, 법납 75세로 춘성 큰스님은 임적하셨다.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 옷 한 벌과 발우 한 벌을 고수하신 큰스님, 문도들은 스님의 법과 정신을 기리며 오직 가풍만을 실천할 뿐 거창한 추모와 현창(顯彰)사업을 하지 않았다. 선이 다된 연세에 참선문에 들어와 스님께서 보여주신 정진력과 무애도인의 삶은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요즘 스님들은 예전에 비해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복지활동, 포교, 경전공부 등 자신의 성품에 맞게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 그 많은 길 중에서 선승이 되기 위한, 아니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몇이나 될까? 세속적 욕망은 물론이요,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잠시 뒤로 미뤄야 하는 선재에게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서늘한 기상이 서려있다.

‘화엄법사’라는 명성과 그 자리에 안주하기 쉬웠을 49세의 나이에 세상에나 출세간의 일이나 걸림 없는 선승의 길을 택한 춘성 큰스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 후학을 위한 거침없는 경책과 몸매인 검소함을 닦고 싶다.

첫 삭발 했을 때의 설레임과 초심 변하지 말라고 하셨던 은사스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림 없는 굳은 의지로 참다운 내 모습을 찾는 이 길을 걸으리라. 이번 겨울에는 내리는 눈을 두 팔 벌려 맞이해야겠다. (종)



선달 그믐날 밤

서 주/사집과

파옥 국제명상 센터와 호흡관 수행법

혜 월 / 사미니과



세상에 천차만별의 스승들과 다양한 수행법들과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 미얀마에 있는 파옥 명상 선원은 그중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곳이다. 나는 거기서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를 직접 수행하고 맛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아주 감사히 생각한다.

파옥 센터는 미얀마의 스님 숫자만큼이나 많은 절 중에서도 가장 크게 번창하고 있는 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곳은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300km 떨어진 남쪽의 도시 몰라빈(Malamyine)에 있지만 양곤에서 밤새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양곤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행자들이 쉽게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비교할 데 없는 완벽한 수행체계로 인하여 진정한 구도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다. 간략하게나마 그곳의 일과와 생활, 수행 특징과 호흡관찰 수행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 승가 전통인 계율이 살아있는

일상생활과 탁발

계(戒)가 세속적인 도덕적 법규라면 율(律)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승가공동체를 위한 법규이다. 승(僧)이 속(俗)과 다른 것은 계율에 의거한 부처님께서 보이신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일 것이다. 세속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듯이 승가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승가의 생명이 오래도록 존속되지 못할 것이다.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실은 그들이 계를 묵숨처럼 소중히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 지켜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파옥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곳이다. 계율에 의거하여 행동과 말을 단속, 조심하고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선정수행을 닦은 후 그 힘을 이용해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

오전 9시~10시경이면 미얀마의 어느 거리에서나 스님들의 탁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부처님 당시를 재현하는 듯한, 마치 어딘가에서 부처님을 뵈 듯한 미얀마의 거리다. 파옥에서는 대중도 많고 시내와 거리도 멀어서 절 안의 탁발하는 장소에서 하루에 2번 탁발을 한다. 탁발한 음식에 의존하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디딤돌이 되고 선정과 지혜 수행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II. 사부대중이 수행에 전념하는 365일

미얀마의 수행센터에는 목욕날이 없다. 즉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다. 1년에 몇 차례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365일 같은 일정 아래서 사부대중이 수행에 전념한다.

150만평 규모의 파옥 선원은 100여 명의 외국인 비구 스님과 300여 명의 미얀마 비구 스님 그리고 남자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위쪽 선원과 4~50여 명의 외국인 비구니 스님과 300여 명의 10계를 수지한 사미니 스님과 여자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아래쪽 선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

게 800여 명의 수행자들이 살지만, 계율에 입각해서 수행에 전념하기 때문에 잡음 하나 없이 조화로운 숲 속 생활이 유지된다.

III. 오두막 생활과 수행, 그리고 수행점검

파옥은 대중생활과 작은 오두막(꾸띠) 생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다. 2인 1실에 거주하는 수행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거주한다. 하루 5번의 단제 좌선 시간(1시간 30분씩)에는 대중이 큰 홀에서 함께 좌선한다. 400명의 대중이 함께 모여 청정히 수행하고 있는 큰 선방은 수행자들의 규칙적인 수행을 도와주고 서로에게 격려와 자극이 되는 좋은 수행처이다. 나머지 시간은 정해진 곳에서 경행을 하거나 각자의 오두막에서 수행을 한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우기 동안의 습기가 쉽게 침범하는 얇은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에서 최소한의 필수품과 주어진 탁발 음식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간소한 삶에서 수행자들은 무소유와 마음의 티 없음에 차츰 도달하게 된다.

법이 살아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매일 스승께 수행 중에 생긴 문제점이나 의심, 진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스승은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 수행과제를 준다. 수행자는 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점검받고 다시 그 다음 과제를 제시받는다. 이러한 인터뷰를 통하여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보이신 법을 점차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승의 격려와 질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인터뷰 시간은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IV. 파옥 수행의 특징 - 선정(사미타, 止)을 통한 지혜수행(위빠사나, 觀)

현재 파옥 센터를 이끌어 가고 계신 파옥 사야도 우 아친나께서는 빠알리 초기경전과 『청정도론』, 『아비담마』에 근거하여 선정을 바탕으로 한 지혜수

행을 가르친다.

2종류의 수행자가 있다.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순수 위빠사나 수행자와 사마타 수행을 한 후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자이다. 파옥 사야도께서는 『상응부』 진리상응의 삼매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구들이여 삼매를 계발하라. 삼매를 얻은 비구는 제법(諸法)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씀에 따라 선정을 닦아야 사성제인 제법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친다.

40가지 선정수행의 대상이 있지만, 25년간의 수행 지도 경험을 통하여 사야도께서는 아나빠나 사띠(Anapana-sati,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로써 수행자들이 선정을 성취함이 가장 쉽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파옥에 도착한 수행자에게 보통 아나빠나 사띠 수행 주제를 준다. 이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행자는 4대 수행이나 다른 명상 주제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선정 수행의 대상을 통하여 집중력이 차츰 좋아지면 강한 삼매로 인하여 지혜의 빛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빛으로 수행자는 유위법인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이 유위법이 아주 빠르게 생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의 특성인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통찰을 통해서 수행자는 유위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위법인 열반을 증득할 수 있게 된다.

V. 들숨 날숨에 마음 챙김

(아나빠나 사띠 Anapana-sati)하는 방법

『대념처경(大念處經)』의 아나빠나 사띠 수행법에 근거하여 파옥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행방법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다.

첫째, 올바른 몸자세이다. 다리는 평좌로 하고 척추를 똑바로 세운 뒤 온몸의 긴장을 푼다.

둘째, 올바른 마음자세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숙고하면서 걱정과 계획,



기억, 망상들을 내려놓는다. 수행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온갖 세상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추겠다는 강한 결의가 필요하다.

셋째, 숨에 친숙해지기이다. 윗입술이나 콧구멍 주변의 들숨과 날숨이 피부에 닿는 접촉지점에 마음을 둔다. 한 대상에 집중된 마음이 선정을 가져 오기 때문에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숨이나 몸 바깥으로 나가는 숨을 따라가지 않는다. 마치 관찰자처럼 자연스러운 숨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숨을 조절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숨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숨에서 사대(四大)요소의 특성 - 단단함,

부드러움, 거침, 매끄러움, 무거움, 가벼움, 흐름, 응집, 따뜻함, 차가움, 지탱, 움직임 - 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특성이 점점 뚜렷해져서 그로 인해 집중력이 흩어질 것이다.

때때로 숨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숨이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세해져서 수행자가 그 미세한 숨에 익숙하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내하면서 마음 챙김을 지속한다면 점차 미세한 숨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숨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수행자는 중도(中道)의 길을 가야 한다. 과도하게 노력하면 긴장이나 두통, 눈의 피로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노력이 부족하면 망상이나 졸음에 빠지게 된다. 단지 숨을 알 수 있기에 충분한 노력이면 된다.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얽히지 말고 재빠르게 숨으로 돌아온다. 망상이 자주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숨을 ‘들숨-날숨’이라고 인식하거나 날숨의 끝에서 ‘하나’ 하고 숨을 셀 수도 있다. 여덟까지 세는 것이 좋다. 숨을 셀 때도 여전히 숨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다시 단지 숨을 알면 된다.

성냄이나 증오, 분노 등이 일어나 숨을 제대로 알아차림 할 수 없을 때는 자비관을 잠시 한 후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숨을 알아차린다.

넷째, 접촉지점에서 숨 자체에만 깨어 있기이다. 숨에 15-20분 정도 지속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숨에 상당히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숨의 접촉지점을 무시하고 접촉지점을 도구로써 그위를 지나고 있는 숨에만 오직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숨에 익숙해지기 전에 너무 일찍 이 방법을 시도하면 얼굴 주위에 긴장이 생길 것이다.

다섯째, 숨의 전 과정에 알아차림 하기이다. 30분 이상 계속 숨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숨의 전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즉 한 지점에서 들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한 후, 같은 지점에서 날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빈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방황하거나 달아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집중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숨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다. 이 때 길거나 짧은 것은 숨의 지속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숨의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숨쉬기가 느리면 숨이 길어지고, 숨쉬기가 빠르면 숨이 짧아진다. 숨은 있는 그대로 두어야지 의도적으로 길거나 짧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숨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숨의 전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유지한다면 집중은 점점 더 안정될 것이다. 만약 한 번 좌선 시, 숨에 한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3일 이상 계속 할 수 있다면 숨은 빛, 즉 집중의 표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호흡과 집중력 사이에서 발생한 빛을 대상으로 색계 사선정을 차례로 계발할 수 있다.

여섯째, 일상에서의 숨에 대한 지속적인 알아차림 유지이다.

일상생활 중에도 숨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좌선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수행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움직이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숨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 가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수행의 빈틈을 점점 줄여야 한다. 항상 이렇게 수행한다면 나중에는 수행의 빈틈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위와 같이 수행한다면 머지않아 선정을 얻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파옥 국제명상 센터에서의 일과와 생활, 수행 특징과 호흡관찰 수행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당시의 수행법 그대로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일기일회(一期一會)’가 될 것이다. 이제는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나설 때이다. ☸

가야 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목스님을 뵈고 -

도 일 / 사교과

당당한 기개를 자랑하는 지리산 끝자락을 타고 내려 앉은 소박한 어느 마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스님들이 모여 사는 절이 있다. 그 절은 인드라마 생명공동체와 귀농학교, 화엄학림 등의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스님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곳이 바로 '실상사'다. 여느 비구스님 절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과는 달리 실상사 도량의 정취는 키 낮은 야트막한 수수함으로 다정다감함을 불러 일으킨다. 이웃집 같은 편안함이 있다. 그곳의 화엄학림에서 중강소임을 맡고 계시는 각목스님은 현재 초기불전연구원의 지도법사로 있으면서 '빨리어 삼장완역'이라는 대원력을 세우고 경.유.론 삼장의 초기경전을 번역하고 계신다. 스님을 만나는 1박 2일의 여정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강한 여운을 남겨 주었다.

실상사 일주문을 지나 고개 하나를 가볍게 넘으면 '실상사 화엄학림'이 있다. 다실에서 스님이 직접 달여 주는 차를 마시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들의 다소 두서없

는 질문들에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그분의 따뜻한 배려가 두고두고 떠오른다.

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초기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대학 다닐 때 대불련 활동을 하다가 한글로 된 불교입문서를 읽다보니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요. 아함경을 처음 접하고 부처님의 생생한 모습을 만났지요.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한 책들을 접하면서 초기불교가 불교의 시발점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일본에는 두 번 불교가 전래됐어요. 첫 번째는 중국, 한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는 서양을 통해서 근세에 들어온 초기불교죠.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들어온 것을 대사전으로 보는 것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법정스님의 숫타니파타가 1975년 번역되어 나왔을 때 대학생 불자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때 나는 남들보다 일찍 관심을 가졌지요. 1983년쯤 한국에 들어온 윌폴라 라홀라스님이 쓴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어요.

1987년 칠불암에서 하안거를 날 때 외국 나가는 것이 화두처럼 들렸죠. 이상하게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 현장스님이 한국에서 초기불교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나를 추천하게 된 계기로 초기불교와 인연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스리랑카를 가기로 했는데 그곳에 내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로 일정이 지체되면서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비담마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접근할 방법이 있나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현재 교학체계가 붕 뜬 소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空'이다, '실체가 없다', '一切唯心造'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공허한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법을 따져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아비담마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수학수준을 볼 때 그것보다 아비담마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아비담마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심을 바꿔보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의 교학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초기불교가 좋은 것은 알지만 지금 현실사회·문화와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초기불교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통기부여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초기경전이야말로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가장 가깝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쌍웃다니까야'의 내용 중에 2권에서 6권까지를 보세요. 이런 경전들은 출가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한 설법, 스님들과의 토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요.

학인스님들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소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경전을 보고 배우는 입장에서 출가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구나, 만약 이런 문제의식을 못 가졌다면 출가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간화선의 화두 잡는 것과 위빠사나 수행할 때 사띠(sati)가 어떻게 다른가요?

화두를 챙기는 것이 사띠고, 수행에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행방법이 달라지죠. 대상을 거둬들여 챙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사띠, 즉 마음챙김입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마음챙김 하는 것이죠.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다를 것이 없어요. 마음챙김의 대



상을 신수심법(身受心法) 네 가지라 하면 대상에 마음을 묶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챙김이고 맞줄을 묶어 놓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신수심법으로 나눌 수 있지요.

화두가 무엇이나에 따라 신수심법에 배대해서 볼 수 있겠어요. '이뤄꼬'라고 보았을 때 심념처로 보는 것이 맞겠고 '無'자 화두는 법념처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간화선을 사마타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목조선이 사마타로 볼 수 있고 간화선은 목조선의 병폐를 치고 나온 것이잖아요. 간화선은 의정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주좌와 생활선을 강조했지요. 서장에 보면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한국의 선방에서 개념적인 화두를 잡고, 집중의 대상을 화두로 보고 사마타적인 간화선을 하고 있으니 문제점을 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간화선은 의정을 통한 통찰지, 지혜, 반야의 입장이므로 초기불교와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별하는 상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소위 '소승'이라고 말하는 초기불교

와 그 다른 편에 선 대승불교가 본질적으로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날, 옅은 아침안개 속을 헤치고 실상사에서 화엄학림으로 가는 길은 미혹 속에서 깨달음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여정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어제보다 더 친숙하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각목스님께 몇 가지 짧은 사적인 질문을 드렸다.

스님의 인생철학은 무엇인지요?

‘내 식으로 불교를 보지 말고 부처님의 법답게 살자.’

법답게 사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에서 말한대로 사는 것입니다. 道라는 것은 선문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답이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道라는 것은 八正道를 말합니다. 즉 팔정도가 道예요. 매우 명확하죠. 초기경에 다 나와 있음에도 자기식으로 풀어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불교는 개인불교만 있는 실정이에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법답게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스님은 초기불교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까요?

‘부처님의 명령’이라고 하고 싶어요. ‘붓다 사사나(sāsana)’는 부처님의 명령이란 뜻이죠. 그 당시 직계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지요.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겠지요.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해체해서 보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지요?

‘해체해서 보기’는 만나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을 다 법으로 보는 수행입니다. 법이란 개념을 이루는 최소단위죠. 우리는 일반적 개념에 많이 속

고 있어요. 저는 해체해서 보기를 제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일상생활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저절로 드러나죠. 무엇에 집착할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것도 서로 개념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욕망과 이익이 들어가 꼬여버리는 거죠. 서로의 관계도 다 법으로 해체해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담박해지고 현상도 분명해집니다.

번역할 때 정법을 바로 설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지요?

두려움보다는... 지금도 번역할 때 초기경전 주석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승적 안목으로 초기불교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경전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깊이 고민한 후에 다시 아비담마를 접하면서 가슴이 열렸고, 초기경전을 아비담마 번역작업의 토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강원을 졸업할 때쯤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출가 선배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중노릇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제1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를 등한시해요. 그렇게 되면 큰 폭류에 휩쓸려 흘러 내려가게 되죠. 중노릇이 뭐 별거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제1 관심사가 정확히 없게 되면 세속적인 흐름, 개념의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죠. ‘내가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서야 해요. 이 개념이 확고하게 서면 이런 사람은 행운이라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분명히 서면 그때는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죠. 하지만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제1 관심사를 포기할 수 없다면 주저 없이 그 밖의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정말로 중노릇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사무치게 서야 됩니다. 사무치게 서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선방을 가든지 교학을 하든지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그 하나에 전념해야 해요. 그러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했던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 가슴속에 오래 머문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목적의식은 무엇이며, 우리가 출가한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

처음 출가를 결심했을 때, 주변에 얽혀 있는 인연들을 버리고 끊어내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 같은 대자유인, 해탈인이 되기 위한 큰 포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마음의 좌표 어느 지점에서 현재를 살아내고 있을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미 경전 속에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고 자상하게 제시되어 있다. 경전 속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현재의 삶을 치열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바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올바르게 가는 것이리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調御丈夫〕

- 『앙굿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 中 께시 경(Kesi-sutta) -

편집부

그때 말 조련사 께시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말 조련사 께시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께시여, 그대는 훌륭한 말 조련사이다. 께시여,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말을 길들이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길들이 때 온화하게 길들이기도 하고 혹독하게 길들이기도 하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 길들이기도 합니다.”

“께시여, 만일 그대가 말을 길들이 때 그 말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말을 길들이 때 그 말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말을 죽여 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 스승의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사람을 잘 길들이는 가장 높으신 분(無上士 調御丈夫)이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길들이십니까?”

“께시여, 나도 사람을 길들이 때 온화하게 길들이기도 하고 혹독하게 길들이기도 하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 길들이기도 한다.

께시여, 여기서 이것이 온화하게 길들이는 경우이다. 즉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말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말로 짓는 좋은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께시여, 여기서 이것이 혹독하게 길들이는 경우이다. 즉 ‘이것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말로 짓는 나쁜 행위이고, 이것이 말로 짓는 나쁜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축생계이고, 이것이 아귀계이다.’ 라고.

께시여, 여기서 이것이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 길들이는 경우이다. 즉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과보이고, …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축생계이고, 이것이 아귀계이다.’ 라고.”

“세존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사람을 길들이 때 그 사람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께시여, 만일 내가 사람을 길들이 때 그 사람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는 그를 죽여 버린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생명을 결코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나는 그를 죽여 버린다.’ 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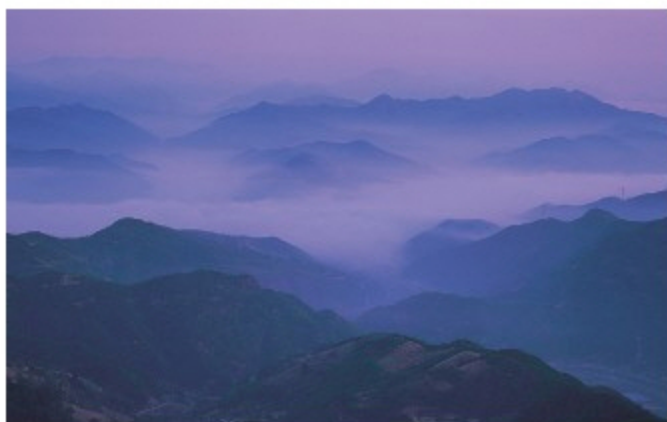
“께시여, 여래가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만일 사람을 길들이 때 그 사람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래는 그를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도 그를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께시여, 여래가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이 성스러운 율에서 살해된 자이니라.”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래가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살해된 자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주시듯, 고따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범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따마 존자에게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저를 재가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순수한 마음은 세상에 대한 보은

문태준 / 시인



마음을 물결에 비유한 시인이 있다. 마음은 늘 움직이지만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세상에 대한 보은이라고 말한 시인이 있다. 김광섭 시인은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 지는 곳. // 물을 던지는 사람 / 고기를 낚는 사람 / 노래를 부르는 사람 // 이 물가 외로운 바람이면 /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나리고 / 숲은 말없이 잠드나니 // 행여 백조(白鳥)가 오는 날 / 이 물가 어지러울까 /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이 이 우주를 얼마나 환하게 밝혀주는지를 노래한 시인이 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움직이는 파동과 같아서 나의 마음이 빛처럼 환하면 다른 데를 것처럼 비춘다고 노래한 시인이 있다. 몸에는 그림자가 따르고 계곡에는 메아리가 따르듯이, 나태주 시인은 '시'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 마음속에 시 하나 씩 읽었습니다 /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 아름다워졌습니다."

"만물이 유전(流轉)한다"라는 말이 있고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있으나 나는 『화엄경』의 설법인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각별히 좋아한다. 마음은 세상의 내면을 다 이루만진다. 마음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것이어서 당신의 꽃에 내려앉는다. 마치 오래된 바위에 푸른 이끼가 돋는 것처럼, 어쨌든 마음은 이처럼 다른 것에 스며들고 작용한다.

나는 한 방송국의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종종 시청하고 있다. 몇몇 인상적인 대화들이 기억에 남지만 우선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대화였다. 그는 돌을 조각하는 사람이었다. 아프리카인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돌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내가 창조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지요. 나는 돌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돌이 내부에 이미 갖고 있는 어떤 형상을 찾아낼 뿐입니다. 돌이 스스로 창조해 놓은 것을 말이지요."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조각가라면 돌이라는 이 길과 속이 딱딱한 것을 쪼고 깎아서 원하는 형상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돌을 나와 똑같은 어떤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었다. 돌이 그 속에 갇추고 있는 외형과 목소리와 빛깔 그것을 존중해서 세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조각가라니 그는 얼마나 겸손한 예술가인가 말이다. 나는 그의 말과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또 한 사람은 히말라야에서 야크를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소금을 만들어 먼 곳으로 가서 그것을 곡물과 바꾸며 연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금을 곡물과 바꾸러 가는 길에 야크 떼를 몰고 곡물이 자라는 초원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물론 가족 모두가 행렬을 이루어 초원으로 이동해갔다. 구르는 돌의 비탈길과 험한 벼랑길을 이동해서 가는 행렬 가운데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도 있었다. 무리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올해로 만 서른세 살입니다. 나는 야크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세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야크를 길러왔고 남은 평생도 야크를 기르며 살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자신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을 조각하는 사람이나 야크를 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 나는 그들의 말을 통해 나의 마음 한 모퉁이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을 때 세상

의 입술인 꽃들이 땅을 뒤덮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여리고 푸른 그 빛으로 세상을 한 겹 덮는 것 같은 마음의 정화를 느꼈다. 동시에 이것은 고요한 물결 같은 것이어서 나의 마음 또한 비춰 보이는 것이었고, 어지러운 나의 마당을 쓸어주는 비결 같은 것이었다. 위선과 거짓말이 없는 마음의 질감 이랄까 그런 것이었다. 돌아보면 나는 내 살아온 것이 잘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았고 온화한 것이 없었다.

내가 즐겨 읽는 산문 가운데는 단연 이규보의 산문이 있는데, 이규보는 마치 고승들처럼 장소와 청중에 호응하여 대기설법을 하기도 했다. 『농암경』을 깊이 이해했고, 말년에는 오신채와 육식을 끊고 계를 지키고자 했다. 이규보의 산문 가운데 절항아리를 노래한 것이 있다. 그가 늘 가까이 두고 있던 절항아리는 흙을 반죽해서 불에 구워 만든 것이었고, 목은 잘록하고 배는 볼록하며 주둥이는 나팔처럼 벌어진 것이었다. 술을 유난히 좋아했던 이규보 거사는 이 절항아리에 술을 담아 두었다가 때때로 마셨던 모양인데 그 절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술의 양은 한 말도 채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산문을 읽다 보면 이 절항아리는 술을 담아두는 용도가 주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차서 넘치게 되는 것이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에 그 쓰임이 있었다. 즉 마음을 측량하고 응병여약을 하는 방편으로써 이 절항아리를 곁에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한 시에서 "고목나무 옆의 쓸쓸한 방장 / 감실에는 등불이 빛나고 향로에는 연기가 인다 / 노승의 일상사 어찌 번잡하게 물어야 알리 / 길손이 이르면 청담하고 길손이 가면 존다"했으니 그 마음의 순수한 경지를 어찌 보통의 사람들이 따르겠는가. 수수하되 맑게 마음을 지니면 그것은 세상의 한 쪽을 고요히 비추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 대한 보은이라 거듭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문태준 시인은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그늘의 발걸음>, <가재미>, <맨발>, <수련거리는 뒤란>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느림보 마음>이 있다. 현재 불교방송(BBS) 프로듀서로 재직하고 있다.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유심작품상,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햇살가득 정토라네

- 명성학장스님 팔순에 올립니다 -

행 법 / 17회 졸업생, 現 동문회장

호거산 봉우리에
무지개 곱게 피어
꽃으로
향으로
못다 올린 공양 올려
팔순 덕화 찬탄하니
정토세상 여기라네.

숲의 빛깔 그대로요
이목소의 맑은 물은
옛 그대로 맑으련만
그 숲이 더 푸르고
그 물 또한 더 맑음은
반백 년 그 옛부터
일켜 오신 크신 사랑

정갈하게 차려입고
모여든 그 도반들
운문의 도량 메운
향기로 넘쳤다네.

원력으로 사무친
당신의 한평생이
빛이 되고
바람 되고
도도한 강물 되어
저희들
귀한 뿌리 적셔주신 크신 은혜
이제는
어둠 밝힐 사바 가득 햇살 되어
청산 같은
창공 같은
크신 뜻을 이으리다.



히말라야에 현신한 보살

신 원 / 사교과

언젠가부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제14>의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菩薩心不應住色布施).”라는 대목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늘 들어오던 불교의 평이한 가르침으로만 여겨 오던 문구가 유독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날, 히말라야에서 온몸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지중한 인연들이 떠올랐다.

“아 유 오케이?”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증으로 급기야 차가운 바닥에 엎드리고야 말았다. 그런 나에게 낯선 청년이 다가와 물병을 내민다. 부족한 산소를 물로 보충해야 한다며,

해발 5,400m.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토롱라’를 목전에 두고 나는 말로만 듣던 고산병의 온갖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가 잦은 문순의 끝자락에서 이미 한 무리의 등반객이 지나간 뒤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늦은 시간, 더 이상 뒤에 남겨진 사람은 없을 거라는 추측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갔다. 바람이 멎고 시공간마저 잊은 때, 그윽한 평화 속에서 돌연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 오고 있었다. 환영처럼, 내게 다가와 물병을 내민 그는 아까 앞서갔던 무리 중의 한 명이었다.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곧바로 되돌아 내려오는 길이라고 했다. 고산병은 무조건 내려가는 게 상책이지만 곧 있으면 정상이고 이후론 줄곧 내리막길이니 조금만 참고 가자며 내 배낭을 돌려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일행 중 3명이 대열에 합류했다.

제 몸 하나 추스르며 걸기도 쉽지 않은 길을, 그들은 낯선 이의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었다. 드디어

자옥한 안갯속에 오색 타르초가 나부끼는 숨 막히는 정상 토롱라. 여전히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감각은 떨어졌지만 마음속에선 환호성이 우러나왔다. 이후 8시간 이상을 걸어서야 목적지인 묵티나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각기 나름의 고산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모두들 언짢은 기색 하나 보이지 않는 모습에 나를 숙연하게 했다. 숙소를 정하고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 했더니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친다. 자신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다만 산에 다닐 땐 항상 누군가와 동행할 것만을 당부했다.

산소가 평지의 50%를 넘지 않는 곳에서 맨 몸으로 그저 앞을 향해 걷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에 남겨진 자그마한 동양인 트래커를 외면하지 않았다. 불과 20분 거리였지만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오르고 싶지 않았을 그 길을 되짚어 내려온 것이다.

각기 다른 여행자들이 이번 트래킹을 위해 모였다는 그들. 고용한 현지인 가이드가 이들이 지불한 많은 액수의 트래킹 경비를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고 했다. 더욱이 모든 짐을 동키(당나귀)에 실어 앞서간 일행에게 보낸 터라 온종일 허기를 견뎌야 했음에도 내가 건네는 간소한 먹을거리조차 다시 내게 양보했었다.

이들의 사정을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커져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 모든 상황과 경험에 초연했다. 토롱라 정상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내게 자신의 바람막이 옷을 입혀주었던 그 18세 어린 덴마크 청년들을 카트만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내가 은혜를 갚아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내게 정상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선물을 남겨주고 떠났다.

꼬박 22일 간 안나푸르나 주위를 걸으면서도 멋진 설산의 풍경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설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들을 만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단지 행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값지고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지극한 애정과 자비심으로 사람을 감동케 했던 그들. 나는 오늘도 금강경을 보며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주었던” 그들이야말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히말라야에 몸을 나투신 보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

龜氏哥

- 어느 거북씨의 노래 -

서 보 / 대교과

별 좋은 겨울날. 이니는 이목소로 양치물 한 컵을 담아 올리기 위해 광대 무량한 계단을 내려간다. 팡팡 언 빙판 위로 겨울 햇살이 잘게 잘게 반사되어 부서진다. 밟지 않은 겨울 햇살이 따사롭기만 하다. 그 가로 쭉그리고 앉아 얼음을 조금 깨어 불 묘연한 궁리에 빠지는데...

저때에 얼음층 안으로 돌돌 흐르는 물소리, 낮게 읊조리는 심연한 음성이 이니의 귀에 가까스로 감지되었으니.....

나는 이왕 간에 들었음이라,
이 마음은 지금 일을 망치놓고 이제 오늘을 오가며 싹떡이며 생겼네.
나라는 보물 상할까 노심조사, 귀는 일 마르고 마더 굴렸네.
수입 살 때 눈을 난만을 착수고대하고, 찾고 나서 그제야 잘못 살았다 했네,
배부르고 추운한 기분이 정반, 손력을 하기도 전에 몸과 마음을 고단파했네,
상현 자존심에 눈물 흘리며 나를 종살도록 측은히 여겼네.
기쁘다가 슬프다가, 모든 주인 없는 마음이 지은 일이었네,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지만, 절된 심연 헛되이 버렸네.
나는야 어딘고 내버리두고, 다른 이의 찰찰못 거닐기만 했네.
꾸익꾸익 졸다가 내 목 안아난 줄 몰랐네.
한방없이 편대한 양을 하다가 내가 손해날까 으르렁거렸네.
강불 언 지세를 구사리 했나, 터덕민간 아는 것조차 행사지 않았네.
잠시 쫓겨고 히어내다가 곧 토리지 난을 세웠네.
부지남은 그 거북하신 거동으로도 교화하셨지만, 이 제자 하는 양은 닮아있네.



좋은 기분 나쁜 기분 모두가 옮겨질 수 없는 것이었네.
경계를 보고 거울鏡로 비춰 보지는 않고, 경계와 경계를 지었네.
공영공은 남쪽남쪽 살도 많은 이가 스스로 공영공 될 것을 왜 몰랐을까,
인연이 나히면 사라지는 것, 이런저런 너는 없고 곧 종업이네.

이와 같이 들어 마치고 마저 입안을 개워 낸 이니는, 벌써 서산으로 기우는 겨울 해를 아쉬워한다.

아! 뭔가 아는 소리를 좀 늘어놓던 저니는, 저 옛날 따뜻했던 봄날부터 여름날까지 너른 바위 위에 그 쭉그려진 목을 쭉~욱 빼어들고 우리네 일과와는 무관히도 오랜 시간 별을 쏘이던 그 거북씨 아닌가 한다. 그래와야 이목소 안 거북씨가 우리네 사정을 어찌 알까보냐 하고, 저니가 거북인가 자라인가 끝내 알지 못키라 한다.

이런저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니는 걸음을 돌려 다시 광대 무한한 계단을 오른다. 양치 컵을 선반 위에 탁 올려놓고 돌아서는데...

때에 뜰에서 어슬렁거리던 고양이 보살과 눈이 마주치고, 저가 손가락을 땡겨 소리를 내니 눈앞에 한량 없는 전각들이 펼쳐지는데, 크고 넓고 화려하기가 허공과 같고 서로 장애되지 않고, 어지럽게 섞이지 않았다.

그 전각 사이를 오가는 저 자유자재한 이들, 보리심을 이미 발하였고, 몸과 마음이 유연하여 모든 의혹을 떨쳐버리고, 두루 움직이며 복덕을 심고, 모든 것을 두루 보고 널리 예경하는 착한 도반들, 그 속으로 천천히, 기억하며 걸어 들어간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편집부

돌이면서 하나인 듯, 많이도 닮아있는 나무를 보다가 한동안 발길을 멈춘다. 바람 불고 눈보라쳐도 상관치 않고 묵묵히 서 있다. 똑같다. 아니, 똑같이 닮았다.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함께 살아온 인연 때문인가.

시간.

시간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저 두 그루의 나무를 한 그루처럼 보이게 하는 걸까. 운문사 도량 내(內) 한 편에 있는 은행나무는 오늘도 나란히 세월의 그 중심에 서 있다.

닮아간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2500여 년 전.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위의를 걱정하였던 마승존자의 반듯한 걸음걸이를 보고 감복하여 출가를 했다. 3가섭 또한 그들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동(動)하여 천명 대중을 이끌고 출가를 한다. 우리에게선 이처럼 좋은 모습을 보거나 선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고 다른 사람의 느낌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우리 뇌 속의 '거울뉴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뉴런은 남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관찰자가 직접 그 행동을 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므로, 남의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다는 의미에서 '거울뉴런'이라 명명되었다.

거울뉴런은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탈리아의 작고 아름다운 도시 파르마에 있는 어느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지아코모 리졸라티는 짧은 꼬리 원숭이의 전운동피질에 전극을 꽂고 운동과 관련된 뇌 기능을 연구하고 있었다.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된 뉴런집단이 다른 원숭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볼 때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던 것이다.

거울뉴런의 존재는 우리가 관찰한 타인의 행동은 무엇이든지 마음속에서 그대로 본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모종의 모사나 모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와 다른 사람의 틈을 메우는 뇌 세포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행주좌와 어묵동정 대부분이 관찰과 모방에 의한 반복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시선은, 나의 관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 거울, 수행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으며 어떤 것을 닮아 가고 있는가. 조석예불을 하면서 부처님을 늘 뵈고, 경전을 독송하며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듣는 우리는 부처님과 얼마만큼 닮았을까? 부처님을 똑같이 닮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환희로운 변화는 없을 것이다.

때로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되기도 한다. 나의 거울뉴런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반듯한 걸음걸이 하나로도 천이백 대중을 부처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다. 반대로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가 그보다 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한 해를 잘 사는 일, 한철을 잘 가꾸고 한 때를 잘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깥 경계에 따라 수많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신론에서는 불각(不覺)에 의지하는 연고로 삼종(三種)의 상(相)이 생겨나는데 그중에서 능견상(能見相)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경계상(境界相)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경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거울뉴런도 능견상(能見相)을 닮았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에 반응을 보인다. 그것이 닮아가고 싶은 좋은 일이든, 보기 싫어하는 나쁜 것이든 관심 두는 모든 것에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들 머릿속 거울뉴런을 이렇게 가동시켜보자. 내가 먼저 웃으면 그도 따라 웃을 것이다. 내가 먼저 긍정하면 그도 따라 긍정할 것이다. 운문사 도량을 400년이 넘도록 묵묵히 지켜왔던 저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서로 닮아가고픈 고고한 모습들을 오래도록 밝혀보면 어떨까. 마주하는 이 순간의 소중함 그대로 서로의 좋은 모습만을 담아서. ॥



▲ 동안거 결제 제사



▲ 학인 논문 공모전 시상식



▲ 설우스님 특강



▲ 오백전 기도 회향



▲ 연판스님 특강

운·문·소·식

- 11월 30일 겨울철 개학공사 및 동안거 결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 12월 4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제5회 전국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사집반 자경스님), 장려상(사교반 이진스님)을 수상 하였습니다.
- 12월 5일 꽃꽂이를 시작으로 명자, 서예, 요가, 사군자, 일어, 영어, 염불, 컴퓨터, 피아노 등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12월 11일 겨울철 포살 법회가 청풍료에서 봉행 되었습니다. 이날 포살 법사는 진 광 강사스님께서 맡아주셨고, 산 내 암자 스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 12월 12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스님의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2일~13일 '해처럼 밝고 꽃처럼 고운 천진불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사조마을 리 조트에서 열린 제48차 전국 불교어린이 지도자 연수회에 교화무 스님 32명이 다녀왔습니다.
- 12월 18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9일 서광스님의 '유식 30송'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20일 지난 9월 13일에 입재한 오백전 기도 회향에 700여 명의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성 학장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21일~24일 동지행사로 3박 4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월 3일~ 5일 실상사 연관스님의 '금강경'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6일 대교만 스님들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 1월 8일 겨울철 자초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8일 '미국불교와 미국 불교학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명법 강사스님의 특강 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월 22일 '성도제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 1월 28일 승가대학 제46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 2월 2일 40일간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 2월 3일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동·문·소·식

※ 제17회 동문회 임원진 명단입니다 ※

회장 : 행법스님, 부회장 : 선법스님, 임미스님, 감사 : 정우스님, 모희스님,

총무 : 희운스님, 재무 : 정운스님, 서기 : 혜철스님

제22회 졸업생 청도 용산사 주지 도명스님이 운문동문회 기금으로 1,000만원 기부하셨습니다.

도와주신 분

- | | | | |
|----------|----------|----------|----------|
| · 황수진불자님 | · 박승희불자님 | · 최종순불자님 | · 이기태불자님 |
| · 김공임불자님 | · 권혁창불자님 | · 배성태불자님 | · 최동인불자님 |
| · 공평악국 | · 삼신사 | |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 (FAX 겸용)

| 등 불 |



김민호 / 제주풍나무2 / 48x90cm / Line etching 2006

인 내

번뇌들은 우리에게 심하게 저항한다.
유일한 치료약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때로는 인내가 수행의 전부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인내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 아전차 스님의 오두막 -

표지사진 : 대원 성취하소서.

몸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배 흥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111호·2010년 1월 2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일호) / 고문·임진 / 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현산 / 편집위원·장주, 선준, 혜오, 서주, 민석, 덕인, 덕현, 범수 / 사진·종호 / 삽화·지한, 승이
컴퓨터·선준 / 편집디자인·호 미디어 (02)2285-3366